

만화가 다카츠키히로시 교수



이동훈/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사만화가이자 교수인 이원복 교수가 늘 부러웠다.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던 기억도 있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보는 책을 타고 앉아서는 토끼, 강아지 등의 그림을 그려내려던 딸아이들의 수많은 요구들이 곤혹스러웠을 뿐 아니라 단 한번도 만족스럽게 그려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의 전문분야에 있어 그 같은 분이 있어 소개하고 싶다. 그분은 일본 경도 대학의 다카츠키 히로시교수이다. 사실 나는 그분의 전문저서보다는 그분이 그린 만화집들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전문적 영감을 받았었고, 15년도 넘었지만 지금도 수시로 꺼내 보며, 혼자 깔깔 웃거나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다. 그분의 만화집은 영문판으로도 나와 2000년도에는 ISWA(국제폐기물협회) 파리총회에서 저작상도 수상하였다. 전문도서도 아니고 만화책으로 국제전문학술단체로부터 저작상을 받은 것도 예사일이 아니지만, 파리에서 자신의 책에 만화의 캐릭터 사인을 하여 준 것은 나 개인에 있어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은 만화작품집들의 제목을 <コミック(고믹) 廢棄物>로 하였는데, 이 제목은 물론 <코믹 (comic) 廢棄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목을 일본식으로 의상스럽게 바꾼 것이다. 고미(ごみ)란 우리 말의 쓰레기에 해당하는 일본말이고, 廢棄物에서 버릴 棄 대신에 '귀할 貴'를 쓴 것은 두 한자의 일본식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하여 쓰레기 속에는 아직 쓸 만한 물건들이 많고 자원으로서는 이용가치가 높은 물질들이 많다는 것을 코믹하게 나타낸 것이다. 다카츠키교수는 만화전문가는 아니고 취미로 폐기물관련 만화를 그리는 일본에서는 폐기물학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분은 포장폐기물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루어 현대의 폐기물문제에 있어 포장폐기물에 관한 문제를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주제와 현대의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개선과 주제 간의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만화와 저술로 강조하여 왔었다. 이점은 어느 전문가들이나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차이가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는 별 다른 방안이 없는 시점에, 다카츠키교수는 말뿐인 다른 전문가들과는 달리, 많은 대중에 매우 쉽고, 친근하고, 또 정확하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오래 전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국판으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소비시대에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다카츠키교수의 의도를 배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쓰레기 속에 부패버려 가장 많이(50-60%) 차지하고 있는 포장폐기물의 자원화체제 구축문제에 주축이 되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를 확립시켜 나아가길 희망한다. ☺